
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일시	2021. 9. 2.(목) /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 코로나19 생활물류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	담당자	·과장 이창훈, 사무관 엄수연, 사무관 황규오 ·☎ (044) 201-4152, 4156, 4153	
보 도 일 시	2021년 9월 3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3.(금) 9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9월 6일부터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

- 노형욱 장관, 추석 성수기 앞둔 3일 택배 현장 점검 -  
- 현장에서 종사자 과로방지 위한 사회적 합의 철저 이행 당부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택배기사 과로를 방지하고 국민들께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6일부터 10월 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사회적 합의(6.22),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(7.27) 이후 처음 맞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,
  - 실제 현장에서 사회적 합의의 차질없는 이행과 별도 추석 배송대책을 통해 택배기사의 과로를 예방하고,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.
- 특별관리기간 동안에는 종사자 보호와 소비자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.
  - **(추가인력 투입)** 배송물량 폭증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장시간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택배 현장에 약 1만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.

- 지난 6월 22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사업자가 9월부터 투입기로 약속하였던 약 3천명의 분류 전담 인력에 더하여,
- 허브 터미널 보조인력 1,770명, 서브 터미널 상·하차 인력 853명, 간선 차량 2,202명, 동승인력 1,570명, 택배기사 1,346명 등 총 7천명 수준 임시 인력이 현장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.
- (종사자 휴무) 또한, 주요 택배사업자가 추석 연휴 3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,
  -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5일 간(9.18 ~ 9.22)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즐길 수 있게 된다.
- (일일 건강관리)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.
  - 대리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 시작 전·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,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(기타 조치) 이와 함께,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며,
  -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'사전 주문'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고, 택배 이용이 많은 젊은 층의 주문을 분산하기 위해 SNS로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.
-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'미리 주문'하는 것만으로도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,
  - 추석 전 '미리 주문'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,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.

- 한편,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9월 3일 서울 장지동에 위치한 동남권 택배터미널을 방문하여 추석 대비 택배사별 준비사항과 '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'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.
- 노 장관은 사회적 합의 주체인 택배기사, 대리점주, 택배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추석 대책과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을 논의 후,
  - “사회적 합의의 철저한 이행은 택배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양을 만들고, 종사자와는 동반성장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것”이라면서
    - “합의 이행 완료까지 택배사, 대리점, 종사자가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  - 사회적 합의는 택배물량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택배기사의 고강도, 장시간 노동과 이에 따른 과로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 노·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논의 끝에 지난 6월 22일 타결되었으며,
    - 사회적 합의에 참여한 주요 택배 4사\*는 9월 1일부터 분류인력 추가 투입을 시작하여 연말까지 분류작업 개선을 완료기로 한 바 있다.

\* CJ 대한통운, (주)한진, 롯데 글로벌로지스, (주)로젠

- 간담회 이후 노 장관은 동남권 물류센터 내에 위치한 한진·롯데 택배 터미널에서 실제 분류전담 인력이 투입된 현장을 점검하고, 추석 성수품 배송현황 등을 살피며 종사자를 격려했다.
  - 현장에서 노 장관은 “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, 표준계약서 보급, 계약갱신 청구권(6년) 보장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강한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할 것”이라며, 택배 산업의 일자리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영수연 사무관, 황규오 사무관(☎ 044-201-4156, 415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